

‘꿀씨의 반란’ AI페퍼스, 창단 한시즌 최다승 달성

도로공사에 3-2 역전승... 4승 같은 팀 상대로 ‘첫 2승’ 수확
니아 리드·이한비 35득점 합작
올시즌 종료 후 외국인 감독 체제
미국계 한국인 아헨 김 감독 선임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꿀씨의 반란’을 일으키며 구단 역사를 새로 썼다. AI페퍼스는 갈길 바쁜 3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창단 후 팀 한시즌 최다승을 달성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뒷심이 좋아진 게 원동력이다.

AI페퍼스는 지난 18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의 5라운드 경기에서 폴세트 혈투 끝에 3-2(23-25 25-15 18-25 25-17 15-12) 역전승을 거뒀다.

V리그 합류 첫 시즌인 2021~2022시즌 3승 28패, 승점 11을 남겼던 AI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이번 시즌 4승(25패, 승점 11)째를 수확, 지난 시즌의 승리를 넘어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8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2022~2023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 역전승을 거둔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섰다. 또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같은 팀을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쟁겼다. AI페퍼스는 4승 중 2승을 도로공사 원정에서 쟁겼다.

AI페퍼스의 이날 승리는 비록 최하위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선수들의 집념과 투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AI페퍼스는 이번 시즌 3라운드 막판까지만 해도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개막 17연패를 당했다. 매 세트 접전을 펼치다가도 20점대 이후에는 맥없이 물러나는 경

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리베로 오지영을 중심으로 한 수비가 안정되면서 끈끈해진 팀으로 변모해 갔다. 여기에 외국인선수 니아 리드의 국내 무대 적응력이 향상되고 주장 이한비와 박경현, 최가는 등 국내 선수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쟁심이 더해지면 경기 후반 뒷심도 좋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31일 김천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후 자신감도 향상되면서 강호 GS칼텍스

(1월23일)와 현대건설(2월10일) 마저 광주 홈 구장에서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날 도로공사를 상대로 창단 한 시즌 최다승 기록까지 세웠다.

이날 AI페퍼스는 블로킹 12개를 잡아내며 리그 팀 블로킹 1위를 달리는 도로공사(블로킹 8개)를 높이에서 압도했다.

주포 니아 리드가 가로막기 8개와 후위 공격 7개 포함 32점으로 양 팀 최다 득점을 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주장 이한비와 박경현이 각각 21점, 14점으로 힘을 보탤었다. 최가는 세브 득점 3개와 블로킹 3개 포함 10점으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다.

1세트를 아쉽게 내준 AI페퍼스는 2세트에서 이한비와 니아 리드의 측면 공격을 앞세워 10점 차로 따냈다. AI페퍼스는 3세트를 지고 4세트를 가져오면서 5세트로 끌고 갔다.

AI페퍼스는 마지막 5세트에서 먼저 3연속 실점하며 어렵게 출발했지만 이한비와 니아 리드의 공격과 상대 범실로 균형을 맞췄다. 니아 리드의 블로킹으로 5-4 역전 이후 분위기를 주도한 AI페퍼스는 문술기의 세브 때 5연속 득점에 성공해 12-6까지 점수를 벌려 승리에 쐬기를 박았고, 니아 리드의 오픈 공격 성공으로 경기를 끝냈다.

시즌 최다 득점과 함께 팀의 역전승을 이끈 주장 이한비는 경기 후 “올해 긴 연패가 있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언니들도 많이 도와줘서 더 힘났다. 그래서 작년 거뒀던 3승에서 1승을 추가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이 아픈데도 연습 때부터 힘내면서 서로 도와주는 게 고맙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지만, 매경기 최선다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응원 바란다”고 승리 소감을 말했다.

한편 AI 페퍼스 배구단은 2023~2024 시즌을 외국인 감독 체제로 나선다.

AI페퍼스는 신입감독으로 미국의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14년 이상의 지도 경험을 쌓은 아헨 김(37)을 선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아헨 김 신입감독은 오는 2023~2024시즌부터 공식적으로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월 초 입국해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현재 팀을 이끄는 이경수(44) 감독 대행은 남은 2022~2023시즌까지 팀을 이끈 뒤 다음 시즌에는 수석코치로 업무를 이어간다.

최동한 기자 cdstone@jnilbo.com

KIA 퓨처스 스프링캠프 ‘패밀리 데이’ 성료

함평서 선수단 가족 초청 행사

KIA타이거즈가 퓨처스 스프링캠프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패밀리 데이’ 행사가 성료됐다.

KIA 타이거즈는 19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선수단 가족을 초청해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KIA는 이날 퓨처스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의 가족을 초청해 훈련 참관 및 훈련 프로그램 소개, 가족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챌린저스 필드 시설 투어 등 선수단과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날 행사는 합숙 훈련으로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선수단 격려 및 동기 부여 등 선수들의 훈련 집중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선수 가족들에게는 훈련 시설과 훈련 모습을 직접 보며 구단과 소통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KIA는 이날 주점을 통해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관람권과 리조트 숙박권, 캠프중 1일 휴가권 등을 제공했고, 커피 트럭을 운영하는 등 선수와 가족이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FC U15 선수단이 지난 17일 막을 내린 2023 STAY 영덕 춘계 중등 U15 축구대회 화랑그룹 준우승을 거둔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축구협회 제공

광주FC U15, 춘계 중등 축구대회 화랑그룹 준우승

광주FC U15가 올해 첫 대회인 2023 STAY 영덕 춘계 중등 U15 축구대회에서 화랑그룹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FC U15는 지난 17일 경북 영덕 강구대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화랑그룹 결승에서 포항스틸러스 U15에 0-3으로 져 준우승했다.

광주FC U15는 지난 7일부터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K리그 산하 유소년 팀으로 구성된 화랑그룹 A조에 배정돼 경기성남 FC U15(0-2패), 경기부천FC1995 U15(3-2승), 대구FC U15(1-0승)와 예

선을 치렀다. 광주FC U15는 예선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6강에 올랐다. 광주FC U15는 강호 울산현대 U15와 6강전서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겨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겼다.

광주FC U15는 준결승에서 다시 만난 경기성남FC U15를 1-0으로 승리, 예선 패배를 설욕하며 결승에 올랐으나 포항스틸러스 U15에 아쉽게 지면서 준우승에 만족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19일 부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25-25로 무승부를 거뒀고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9승 2무, 승점 20점으로 선두를 유지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화순제일중 조다운, 전국동계체전 4관왕

크로스컨트리 15km 계주서 1위
복합·프리 7.5km·클래식 5km 금

‘전남 스키 유망주’ 조다운(화순제일중 1년·사진)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다.

조다운은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자 16세 이하부 15km계주에서 전다경(화순제일중 2년), 안미랑(화순제일중 1년)과 함께 출전해 1시간04분02초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첫 날인 지난 17일 크로스컨트리 여자 16세 이하부 클래식 5km에서 18분05초9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좋은 출발을 알린 조다운은 다음날 열린 프리 프리 7.5km(26분50초3)에서도 1위를 차지했



다. 조다운은 클래식 5km와 프리 7.5km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복합에서 44분57초2로 3번째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날 15km계주에서 금 1개를 추가하면서 4관왕에 등극했다.

나경준(나주다시초 6년)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나경준은 크로스컨트리 남자13세이하부 8km계주(26분08초9)와 클래식 3km(9분08초6), 복합(20분03초9)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프리 4km(10분55초3)에선 은메달을 땀다. 소지희(나주다시초 5년)는 금 2, 은 1개를 거머쥐었다. 소지희는 크로스컨트리 여자13세이하부 6km계주(21분

08초2)와 클래식 3km(10분22초9)에서 금메달을, 복합(23분16초4)에서 은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전다경은 금 1개(크로스컨트리 여자 16세 이하부 15km계주)와 은 2개(클래식 5km·복합)를, 안미랑은 금 1개(15km계주)와 은 1개(프리 7.5km)를 각각 획득했다. 장원지(화순초 5년)는 금 1개(크로스컨트리 여자 13세 이하부 6km계주)와 동 1개(복합)를 따냈다.

스키 알파인 여자16세이하부의 강다현(여수삼일중 1년)은 은 2개(회전·복합)과 동 1개(대회전)를 획득했다.

산악 아이스클라이밍(시범)의 이영건(30·전남향군산악회)은남자일반부리드 부문 금메달(12.300점)과 스피드 부문 동메달(12.69점)을 각각 차지했다.

정은화(52·전남향군산악회)는 여자일반부 리드 부문 금메달(10.261점)을 획득했다. 최동한 기자